

2026.05.25.

VOL.590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동향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FOCUS

미국 IGoR 출범:
AI 기반 바이오의학 연구 혁신과
글로벌 R&D 구조 변화

CONTENTS

※ 본 내용은 동향 조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01

FOCUS

미국 IGoR 출범: AI 기반 바이오의학 연구 혁신과 글로벌 R&D 구조 변화

1

02

무역통상

EU, 아시아 의존 탈피를 위해 항생제 공급망 보호 조치 합의

5

영국 시민단체, 미영 의약품 협정으로 NHS 독립성 침해 주장

5

미국, 트럼프Rx에 제네릭 의약품 600종 추가 ... 마크 규반과 협력 발표

5

유럽, 최혜국 약가 정책으로 신약 접근성 불평등 심화 우려

6

미국 주한 대사 지명자,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촉구

6

인도-일본 상공회의소, 의료기기 기업 대상 일본 중소기업 협력 매칭 추진

6

미국-중국, 베이징 정상회담 후 관세 인하·희토류 공급 합의

7

EU, 미국 관세 기한 앞두고 미·EU 무역 협정 잠정 합의

7

위너메디컬, 베트남에 6,000만 달러 규모 생산 기지 착공

7

03

의료 인공지능

AI 진단 추론 능력, 의사 수준에 근접 ... 임상 현장 적용 안전성·형평성 과제 부상

8

로비라이비르길리대학, AI 분자 생성 모델 '코코그래프' 개발로 신약·신소재 발굴 가속화

8

레니오바이오-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 무세포 단백질 발현 협력 체결

9

킹스칼리지런던 연구팀, AI 수술 로봇 임상 혁신 가능성 제시 ... 규제·윤리 체계 정비 선결 과제

9

IAPP 캐나다 심포지엄, 3개 주 개인정보보호청 AI 의료 스크라이브 규제 접근법 공개

10

LLM, 헬스-LLM·엠디에이전츠 프레임워크로 건강 예측·임상 의사결정 재편 실증

10

테더, 구글 메드제마를 상회하는 온디바이스 의료 AI 모델 'QVAC 메드사이' 출시

11

웁, 임상의 화상 상담·전자건강기록 연동을 통해 디지털헬스 플랫폼 전환 본격화

11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 환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월 평균

0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파트너 테라퓨틱스, NRG1 융합 양성 담관암 표적 치료제 '비젠그리' FDA 승인 획득	12
리제네론·인텔리아·로켓 파마 등, 유전자 치료 분야 FDA 승인 및 임상 성과 잇따라	12
뉴욕시립대학 연구팀, 대기오염·폭염의 실시간 건강 영향 추적 가능성 확인	13
FDA-CMS, 혁신 의료기기 메디케어 적용 가속화 'RAPID' 프로그램 발표	13
후지필름, 반월판 손상 대상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세이비스커스' 일본 승인 획득	14
FDA, MoCRA 시행 3년 성과 공개 ... 화장품 규제 감독 강화 기초 지속	14
로레알-엔비디아, AI 기반 분자 시뮬레이션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혁신 협력 확대	15
인코스메틱스 글로벌 2026, 바이오텍·실리콘 대체·스킨케어 선케어 혁신 성분 주목	15

05

의료서비스

GCC 의료관광 시장, 2034년 225억 달러 돌파 전망	16
JCH 디지털, 의료관광 수요 회복에도 외과의사 환자 의뢰 부진 지속되는 원인 분석	16
인도,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17
호찌민시-지멘스 헬시니어스, 공립병원 첨단 진단 장비 도입을 위한 협력 추진	17
인도 상공회의소, 제3회 헬스·뷰티·웰니스 심포지엄 개최 ... 의료관광 및 예방 의료 논의	18
태국, 외국인 관광객 의료비 미납 급증에 여행자 보험 의무화 검토	18
WCMT 아프리카 지부장, 이집트 의료 및 웰니스 관광 국가 전략 산업화 방안 제시	19
인도-베트남, 의약품 공급·디지털 헬스·전통 의학 분야 협력 강화 합의	19

06

글로벌 행사

20

FOCUS 미국 IGoR 출범: AI 기반 바이오의학 연구 혁신과 글로벌 R&D 구조 변화

1 바이오의학 연구의 구조적 위기와 IGoR 출범 배경

재현성 위기와 연구 비효율의 누적

-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산하 의료고등연구계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ARPA-H)은 2026년 5월 5일 △분절된 연구 환경 △낮은 재현성 △만성질환 대응 한계 등 기존 바이오의학(Biomedicine) 연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시스템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AI 기반 통합 연구 생태계 구축 프로그램인 지능형연구생성(Intelligent Generator of Research, IGoR)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함 ▶ <관련 내용 보기>

- 2024년 약 7만 5,000개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된 메타분석(Meta-analysis)*에서 바이오의학 분야를 포함한 전체 연구의 약 7분의 1이 결과가 부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별도 추정에서는 위조 연구 비율이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일한 연구 주제로 수행된 다수의 독립 연구 결과를 통합 분석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는 통계적 연구 방법론

- 바이오의학 연구자 72%가 재현성 위기(Replication Crisis)**를 인정하였으며 62%는 게재 압박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제약업계에서 전임상 연구(Preclinical Research)***를 재현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건당 50만~200만 달러(한화 7억 4,369만~29억 7,478만 원)에 달해 재현성 위기가 R&D 투자 효율성을 구조적으로 침식하는 산업 위험 요인으로 재평가되고 있음

** 과학 연구에서 기존 연구 결과를 독립적으로 재현하는 데 실패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문제로, 연구 신뢰성 저하와 자원 낭비의 핵심 쟁점

*** 인체 임상시험 이전 단계에서 세포·동물 모델 등을 활용해 약물의 안전성·효능을 검증하는 초기 연구 단계

| 바이오의학 연구 재현성 위기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연구 신뢰성	바이오의학 포함 전체 연구 약 1/7 결과 조작 가능성, 위조 비율 2~8% 추정	연구 성과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 약화
재현 비용	제약업계 전임상 연구 재현 비용 건당 50만~200만 달러 (한화 7억 4,362만~29억 3,728만 원)	R&D 투자 대비 효율성 저하, 자원 낭비 심화
연구자 인식	바이오의학 연구자 72%가 재현성 위기 인정	연구 생태계 내 구조 개혁 요구 확산
글로벌 제약 상위 20사 R&D	2024년 약 1,800억 달러(한화 267조 7,302억 원) 지출	투자 규모 대비 만성질환 성과 정체 심화

[자료] Chemical & Engineering News, PLOS Biology, PMC, PharmaShots

IGoR 출범의 정책적 배경과 전략적 의미

- 대부분의 연구자는 △전문성 △장비 △협력 네트워크의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에 놓여 있으며, IGoR은 AI 기반 실험 설계와 민첩한 연구 생태계 구조를 통해 기존 방식으로는 접근이 제한되었던 난치성 만성질환 연구 영역을 탐구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중심 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향함
-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IGoR을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당뇨병 △암 등 기존 연구 방법으로는 접근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과다한 분야를 핵심 적용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만성·복합질환 분야 R&D 경쟁력이 투자 규모가 아닌 연구 생태계의 구조적 효율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 전환을 제도적으로 반영함
- 미국 연방정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ARPA-H에 9억 4,500만 달러(한화 1조 4,055억 원)를 배정하였으며, 예산 압박 하에서도 IGoR 출범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것은 고위험·고보상(High-Risk, High-Reward) 연구 철학에 기반한 연구 체계 효율화 방향으로 ARPA-H의 사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함

2 IGoR의 4단계 작동 구조와 기술적 핵심

기존 바이오의학 연구 도구의 한계와 IGoR의 차별성

- 기존 AI 기반 바이오의학 연구 도구는 단백질 구조 예측 및 신약 후보 물질 생성 등 특정 단계에 특화된 단일 기능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①연구 가설 수립 ②실험 설계 ③검증 ④데이터 환류로 이어지는 전주기 연구 순환 구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ARPA-H는 단순히 실험실 자동화를 보조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 도구는 IGoR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메커니즘 추론(Mechanistic Reasoning) △다중 에이전트 심의(Multi-agent Deliberation)* △구조화된 과학적 논증에 기반한 아키텍처(Architecture)를 요구함
* 여러 개의 독립적인 AI 에이전트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논쟁하거나 협력하여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
- IGoR는 △생물정보학(Computational Biology)** △메커니즘 모델링(Mechanistic Modeling) △AI 오케스트레이션(AI Orchestration)*** △실험실 자동화·로봇공학 △실험 프로토콜 표준화 △분산 시스템 설계 전문성을 보유한 다학제 팀을 선발하여 4개 기술 영역을 통합 구현하도록 설계됨

** △컴퓨터 과학 △데이터 분석 △수학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구하는 학문

*** △여러 AI 모델 △데이터 소스 △소프트웨어 도구 △워크플로(Workflow)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조율하고 관리하여, 복잡한 AI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하고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하는 기술

IGoR 4개 기술 영역 구조 및 작동 메커니즘

- 기술 영역 1(TA1)은 △분자 △세포 △조직 △장기 등 다중 스케일에 걸쳐 인과적 생물학적 관계를 인코딩(Encoding)하는 메커니즘 질환 모델(Mechanistic Disease Model)****을 구축하는 것으로, △검증 가능성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지속적 실험 데이터 업데이트 기능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함
**** 질환의 생물학적 작동 원리를 인과관계 기반으로 수학·계산적으로 표현한 시뮬레이션 모델
- 기술 영역 2(TA2)는 질환 모델을 기반으로 지식 공백을 식별하고 최적 실험을 설계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AI Orchestration Layer)로, AI의 추론 과정을 연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이 가능한 설명(Interpretable Narrative)과 시각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핵심 요건으로 함
- 기술 영역 3(TA3)은 자격을 갖춘 모든 실험실이 동일한 실험을 재현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단계별 프로토콜 아키텍처(Protocol Architecture)를 구축하는 것으로, 실험 절차를 데이터 파일처럼 실험실 간 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술 영역 4(TA4)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수행하고 골드 스탠다드 데이터(Gold-Standard Data)*****를 질환 모델에 지속적으로 환류하는 검증 실험실(Validated Laboratories) 분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구 생태계의 자율 갱신 구조를 완성함

***** 엄격한 표준화 절차와 독립적 검증을 거쳐 신뢰성이 확보된 최고 품질의 실험 데이터

IGoR 4개 기술 영역 구조 및 핵심 기능 요약			
기술 영역	명칭	핵심기능	시사점
TA1	메커니즘 질환 모델	분자~장기 다중 스케일 인과관계 인코딩, 지속적 데이터 업데이트	통계 상관이 아닌 인과 기반 질환 이해 가능
TA2	AI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지식 공백 식별·최적 실험 설계·추론 과정 시각화 제공	연구자 직관 의존에서 AI 기반 체계적 실험 설계로 전환
TA3	표준화 프로토콜 아키텍처	모든 자격 실험실이 동일 실험을 재현 가능한 단계별 표준 체계	실험실 간 재현성 확보, 연구 결과 신뢰도 제고
TA4	검증 실험실 분산 네트워크	표준 프로토콜 수행·골드 스탠다드 데이터 생성·질환 모델 환류	자체 개선 연구 생태계 구현, 지식 축적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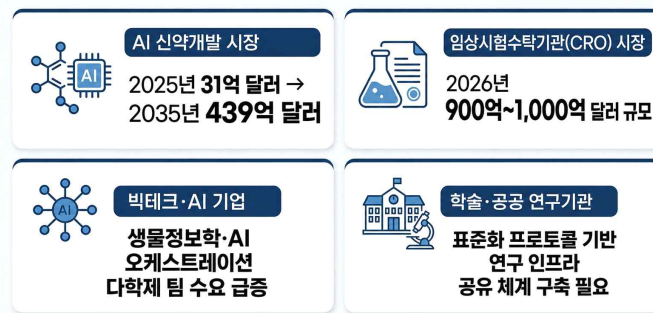
[자료] ARPA-H, EverGlade

3 제약·바이오 R&D 생태계 파급효과와 한국 시사점

AI 연구 자동화가 촉발하는 산업 구조 재편

- 글로벌 시장 조사 기업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은 2025년 약 31억 달러(한화 4조 6,109억 원) 규모에서 2035년 약 439억 달러(한화 65조 3,054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30.5%로 분석되는 가운데 만성·복합질환 분야 R&D 수요 확대와 AI 플랫폼 기술 고도화가 시장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IGoR의 TA4 검증 실험실 분산 네트워크는 △클라우드 실험실(Cloud Laboratory)*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 △학술 시설 △자율 실험실 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기존 임상시험수탁기관 중심의 위탁 실험 수행 구조를 표준화 프로토콜 기반 분산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산업 구조 재편을 촉진할 것으로 분석됨
 - *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접근·운용 가능한 자동화 실험 인프라로, 물리적 실험실 없이 △실험 설계 △수행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연구 환경
 - **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신해 임상시험 및 전임상 연구 등 R&D 업무를 수탁 수행하는 전문 연구 서비스 기업
- 글로벌 리서치 기업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 시장 규모는 900억~1,000억 달러(한화 133조 8,651억~148조 7,390억 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AI △분산형 연구 모델 △데이터 통합 역량이 핵심 경쟁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IGoR형 표준화 실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수탁기관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음
- IGoR는 △학술기관 △스타트업 △기술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보건 혁신을 ARPA-H의 핵심 방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 제약사 △빅테크(Big Tech) △학술기관 △임상시험수탁기관 간 역할 재분배와 함께 AI 연구 생태계 주도권을 둘러싼 신규 경쟁 구도 형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별 현황



[자료] Global Market Insights, Fortune Business Insights, EverGlade

한국 바이오헬스 R&D 구조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

- 2026년 한국의 보건의료 R&D 총 규모는 2조 4,2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주요 R&D 예산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 652억 원으로 편성되는 등 AI 기반 신약개발 및 디지털 의료 혁신이 국정과제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음
- 2026년 4월 개최된 바이오 코리아 2026(BIO KOREA 2026)에서 전문가들은 AI 기반 신약개발의 주요 과제로 △데이터 관리 및 보안 △AI 모델 정확성·데이터 다양성 확보 △전문 인력 부족을 지목하였으며, 이는 IGoR가 해소하고자 하는 글로벌 연구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와 동일한 맥락으로 분석됨
- 한국은 지속적인 바이오헬스 R&D 예산 확대 및 우수한 ICT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AI 연구 플랫폼 △표준화 실험 인프라 △국제 공동연구 참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경우 IGoR 생태계 내 글로벌 연구 파트너로서의 위상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됨

4 실현 가능성 제약과 중장기 전망

기술·규제·윤리 측면의 현실적 제약

- 바이오의학 AI 모델의 재현성은 △데이터 △모델 △학습 복잡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로, 재현성 기준 준수와 연구자 개인 목표 간의 충돌이 AI 재현성 확보의 핵심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고품질 데이터 부족과 표준화 프로토콜 부재가 생명과학 분야 AI 도입의 핵심 장벽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임상 의와 규제기관의 AI 추론 과정 해석 가능성(Explainability)*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IGoR의 TA2 AI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이 이를 구조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가 프로그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 인공지능 시스템, 특히 복잡한 머신러닝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과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유럽연합 AI법(EU AI Act)은 의료 등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훈련 △검증 △테스트 데이터의 대표성·완전성 의무화 및 알고리즘 편향(Algorithmic Bias)** 심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2026년 전면 발효됨에 따라 IGoR형 AI 연구 생태계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체계 정비가 선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시스템이 △설계 △데이터 수집 또는 △학습 과정에서 체계적 오류를 일으켜, 특정 집단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결과를 내놓는 현상

*** 데이터의 수집·저장·활용·보안에 관한 정책·절차·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적 체계

- ARPA-H는 IGoR 수행기관으로 약 3개 다학제 팀과 기타거래협약(Other Transaction Agreement, OTA)**** 방식으로 체결할 계획이며, 솔루션 요약서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25일, 최종 제안서 제출 기한은 2026년 8월 6일로, 5년 프로그램의 성과 불확실성과 상용화까지의 전환 비용이 IGoR 확산의 현실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 △일반 정부 조달 계약 △보조금 △협력 협정이 아닌 유연한 협약 방식으로, 연방 조달 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의 제약을 받지 않아 비전통적 연구기관 및 스타트업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미국 연방정부 계약 형태

미국 주도 AI 연구 표준화 전략과 중장기 전망

- IGoR는 △실험 데이터 반환 후 4시간 이내 질환 모델 자동 업데이트 △상호운용 가능한 프로토콜 표준 구축 △계산 산출물·메타데이터(Metadata)에 대한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저장소 구축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어, IGoR의 표준화 성과가 향후 글로벌 바이오의학 연구 방법론 표준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ARPA-H 국장은 IGoR가 △증거 생성 △공유 △검증 방식을 현대화할 것임을 강조하며, 미국이 AI 기반 바이오의학 연구 표준화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공식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 IGoR의 폐쇄 루프(Closed-Loop)***** 연구 생태계가 본격 가동될 경우, 기존 연구 방법으로는 해결이 지연되어 온 만성·복합질환 분야에서 중장기적으로 연구 속도와 성과의 질적 전환이 전망됨

***** △가설 생성 △실험 수행 △데이터 환류 △모델 개선이 외부 개입 없이 자동으로 반복되는 연구 순환 체계

- IGoR는 △신경퇴행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만성 통증 △신흥 감염병 등 다인성(Multifactorial) 원인과 불명확한 작동 메커니즘을 지닌 질환을 핵심 적용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바이오의학 연구 우선순위 설정과 국제 연구 협력 구조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출처] HHS, 2026.05.05.; Chemical & Engineering News, 2025.07.14.; PMC, 2024.11.05.; PharmaShots, 2025.08.21.; DistillINFO, 2026.05.07.;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2025.06.04.; ARPA-H, 2026.; EverGlade, 2026.05.06.; GovInfoSecurity, 2026.05.06.; MOHW, 2026.03.03.; ExecutiveGov, 2026.05.06.; Fortune Business Insights, 2025.; 한국데이터경제신문, 2026.04.20.; Global Market Insights, 2026.03.; 한국약학신문, 2026.02.20.; 한국데이터경제신문, 2026.04.26.; 전국인력신문, 2026.05.12.; PMC, 2025.01.10.; IntuitionLabs, 2026.02.01.; PMC, 2026.03.03.; MvChesCo, 2026.0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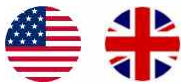


EU, 아시아 의존 탈피를 위해 항생제 공급망 보호 조치 합의

EU agrees on measures to protect antibiotic supply chain from Asian dominance

- EU 회원국과 의회 대표들이 5월 12일 필수 의약품 부족 방지와 아시아 의존도 해소를 위한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CMA)*에 따른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며, 약 270개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의 공급처 다변화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포함함
* EU가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산업 정책으로, 공급처 다변화·전략적 재고 확보 등을 포함함
- EU 회원국이 2022~2024년간 필수 의약품 136종의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은 가운데, 아시아 업체가 EU에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상황으로 미국과 동일한 공급망 취약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는 공공조달 시 EU 역내 생산 제품 우대를 허용하는 조항도 담고 있음
- EU와 미국이 필수 의약품의 아시아 의존도 감축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어, 향후 양측의 서방 제약 생태계 공동 구축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WTAQ, 2026.05.12.;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 2026.05.20.]



영국 시민단체, 미영 의약품 협정으로 NHS 독립성 침해 주장

UK campaigners claim U.S.-UK pharmaceutical deal threatens NHS independence

- 영국 시민단체 저스트 트리트먼트(Just Treatment)와 글로벌 저스티스 나우(Global Justice Now)가 미국-영국 제약 협정의 일환으로 4월 발효된 법령이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보건부 장관에게 해당 법령 철회를 요구하는 법적 서한을 발송했으며, 불응 시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법령이 법률에 부합하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
- 문제가 된 법령은 보건부 장관에게 NICE의 비용 효과성 기준치를 직접 설정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시민단체는 이를 통해 NHS가 신약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강제되어 2035년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30만 명 이상의 NHS 환자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함
- 무역 협상 조건이 NHS 의약품 승인 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어, 각국 공공 의료보험 제도의 독립성과 의약품 접근성 보호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The Guardian, 2026.05.18.;Politico, 2026.05.18.]



미국, 트럼프Rx에 제네릭 의약품 600종 추가 ... 마크 큐반과 협력 발표

U.S. adds over 600 generic drugs to TrumpRx in partnership with Mark Cuban

- 미국이 5월 18일 온라인 의약품 직접 구매 포털 트럼프Rx(TrumpRx)에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 600종 이상을 추가하며 대폭 확대했으며, 비용 절감 플랫폼 코스트 플러스 드럭스(Cost Plus Drugs)를 운영하는 △마크 큐반(Mark Cuban) △아마존 파마시(Amazon Pharmacy) △굿알렉스(GoodRx)가 협력사로 참여함
- 기존 트럼프Rx에는 약 75개 브랜드 의약품만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번 제네릭 의약품 600종 추가로 특히 보험 미가입자와 고액 공제 플랜(High-Deductible Plan)* 가입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됨
* 월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본인 부담금이 높은 보험 상품
- 다만 보험 가입자의 경우 트럼프Rx보다 저렴한 대안이 존재할 수 있어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 주도 약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이 의약품 유통 시장의 주요 화두로 부상함

[Washington Post, 2026.05.18.;AP News, 2026.05.18.]



유럽, 최혜국 약가 정책으로 신약 접근성 불평등 심화 우려

Europe faces widening inequality in access to new medicines as MFN pricing policy raises concerns

- 유럽 제약산업협회(European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s, EFPIA)의 발표에 따르면, 2021~2024년 승인된 168개 신약 중 49%가 지난해 유럽 환자에게 공급되지 않았음
- 미국의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약가 정책 도입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의약품의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승인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임
- 미국의 MFN 약가 정책이 유럽 내 신약 접근성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EU의 의약품 지출 확대와 신약 승인 절차 개선이 글로벌 의약품 혁신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임

[EFPIA, 2026.05.19.; Pharmaphorum, 2026.05.19.]



미국 주한 대사 지명자,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촉구

U.S. ambassador nominee vows to press South Korea on \$350 billion investment pledge

- 미국 주한 대사 지명자가 상원 외교위원회(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한화 520조 2,065억 원)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불명확하다며 한국 측에 명확한 이행 계획 제시를 촉구함
- * 미국 상원에서 △외교 정책 △조약 △외교관 인사 등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 지명자는 한국산 농산물 시장 접근 문제와 미국 기업의 차별 금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미국의 이민 단속으로 투자 이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 장벽도 함께 지적됨
- 미국과 한국 간 무역·투자 협력이 논의되는 가운데 비자·이민 정책이 양국 협력의 장애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의료기기·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 지속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Traders Union, 2026.05.20.; Reuters, 2026.05.21.]



인도-일본 상공회의소, 의료기기 기업 대상 일본 중소기업 협력 매칭 추진

Indo-Japan Chamber of Commerce promotes medical device firm collaboration with Japanese SMEs

- 인도-일본 상공회의소(Indo-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JCCI)*가 인도 의료기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본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과의 협력을 위한 CEO 비즈니스 매칭(Business Matching) 행사 참가를 모집하고 있음
- * 인도와 일본 간 △경제 △문화 △교육 분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된 양자 상공 기관
- IJCCI는 그간 양국 기업 간 매칭 플랫폼으로서 인도·일본 비즈니스 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기관이며, 이번 행사는 인도 의료기기 기업들이 일본 중소기업과의 △기술 협력 △부품 공급 △공동 연구 등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도·일본 간 의료기기 분야 협력 강화가 아시아 역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양국 규제 협력 및 기술 교류 확대가 주목됨

[The Hindu, 2026.05.21.; WN.com, 2026.05.21.]



미국-중국, 베이징 정상회담 후 관세 인하·희토류 공급 합의

U.S. and China reach agreement on tariff cuts and rare earth supply after Beijing summit

-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관세 인하 및 희토류(Rare Earth)* 접근권 확보에 합의했으며, 양국 무역·투자 협력을 논의할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신설에도 합의함
- * △첨단 전자기기 △방산 △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17개 원소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전략 자원
- 중국은 관세 인하가 합의에 포함된다고 밝혔으나 미국 측 발표에는 관세 인하 언급이 없어 양측 입장에 온도 차가 존재하며, 일부 합의 사항은 양측이 서로 다른 내용을 강조하는 등 세부 이행 방안이 불명확한 상태임
- 미·중 간 무역 긴장이 일부 완화됐으나 핵심 합의 사항의 이행 구체성이 불분명해, 원료의약품(APIs) 등 의약품·의료기기 원자재 수급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향후 협상 진전에 달려 있음을 시사함

[Politico, 2026.05.17.;NHK World, 2026.05.17.]



EU, 미국 관세 기한 앞두고 미·EU 무역 협정 잠정 합의

EU reaches provisional agreement on U.S. trade pact ahead of U.S. tariff deadline

-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5월 20일 5시간이 넘는 심야 협상 끝에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Scotland)에서 체결된 미·EU 무역 협정의 이행 법안에 잠정 합의했으며, 이로써 미국이 제시한 7월 4일 관세 인상 기한 내 합의 완료가 가능해짐
- 이번 합의는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EU 수입 관세 철폐와 일부 농산물·수산물의 우대 시장 접근 제공을 핵심으로 하며, EU 산업 피해 발생 시 관세 인하를 중단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Safeguard)* 조항과 2029년 말 만료 조건(Sunset Clause)**이 포함됨
- * 특정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 긴급 조치
- ** 법률이나 협정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만료되도록 하는 조항
- EU가 추가 관세 확대를 방지하는 데 성공했으나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등 일부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를 포함한 미·EU 통상 관계의 안정성 확보가 향후 핵심 과제로 여겨짐

[DW, 2026.05.20.;Politico, 2026.05.20.]



위너메디컬, 베트남에 6,000만 달러 규모 생산 기지 착공

Winner Medical breaks ground on \$60 million production base in Vietnam

- 중국 의료기기 기업 위너메디컬(Winner Medical)이 5월 20일 베트남 꽝닌성(Quang Ninh Province) 하이하 산업단지(Hai Ha Industrial Park)에 총 6,000만 달러(한화 892억 원) 규모의 신규 생산 기지 착공식을 개최했으며, 2027년 3분기 본격 양산을 목표로 의료용 드레싱 및 수술실 소모품 생산 라인을 우선 구축할 예정임
- 위너메디컬은 110개국 이상에 의료용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베트남이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참여해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비용 경쟁력을 높이려는 판단에서 베트남을 핵심 해외 생산 거점으로 선택함
-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 의료기기 기업들이 생산 역량의 단순 이전을 넘어 △현지화 △기술 이전 △지역사회 기여를 결합한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의료용품 공급망의 다변화 및 회복력 강화 전략이 국제 의료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을 시사함

[Globe Newswire, 2026.05.20.;VIR, 2026.05.20.]

01 AI 진단 추론 능력, 의사 수준에 근접 ... 임상 현장 적용 안전성·형평성 과제 부상

-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된 퍼스펙티브(Perspective)* 논문에 따르면 추론 기반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이 일부 진단 과제에서 의사 수준의 성과에 근접하고 있으며, 오픈AI(OpenAI)의 추론 모델 o1-프리뷰(o1-preview)는 임상병리 사례에서 △88.6%의 정확도를 기록하고 △응급실 환자의 초기 분류에서 67%의 정확도를 달성하여 일부 항목에서 전문의 수준을 상회함

* 최신 연구 성과와 그 의미를 전문가 시각으로 분석·해설하는 학술 논평 형식

- 최신 추론 모델은 텍스트 외에 △이미지 △음성 △영상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Multimodal)**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의료 AI 활용 범주는 ①행정 워크플로(Workflow) ②영상 기록 생성 ③영상 의사결정 지원 ④환자 소통 ⑤의학 연구 지원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됨

**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AI 방식

- 논문은 AI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협력 도구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AI 임상 인증(Clinical Certification)*** 제도 도입을 통해 AI 시스템을 의료 지식 보조에서 감독 하 임상 실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AI 시스템이 임상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절차

- 한편, 독립 평가에서 공개된 소비자용 의료 AI 도구가 응급 사례의 절반 이상을 과소분류(Under-Triage)****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한 실효성 검증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됨

**** 응급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낮은 위험도로 잘못 분류하는 것으로, 치료 지연·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

- AI의 진단 추론 능력이 의사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AI 임상 인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효성 △안전성 △형평성이 검증되지 않은 AI 시스템은 임상 현장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보여줌

[Science, 2026.04.30.;News-Medical, 2026.05.08.]

02 로비라이비르길리대학, AI 분자 생성 모델 ‘코코그래프’ 개발로 신약·신소재 발굴 가속화

- 스페인 로비라이비르길리대학교(Universitat Rovira i Virgili, URV) 화학공학과 연구팀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화학적으로 유효한 신규 분자를 수백만 개 생성할 수 있는 AI 모델 ‘코코그래프(CoCoGraph)’를 개발하여 국제 학술지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Nature Machine Intelligence)에 게재했으며, △신약 △신소재 △냉매 등 다양한 분야의 화합물 발굴을 가속화하는 도구로 주목됨



UNIVERSITAT
ROVIRA I VIRGILI

- 해당 모델은 이미지 생성 AI에서 활용되는 확산 모델(Diffusion Model)*을 분자 구조에 적용한 방식으로, 실제 분자의 결합을 무작위로 분해한 후 역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학습하며 각 원자가 정확한 결합 수를 유지하는 제약 조건을 내재화하여 생성된 분자의 100%가 화학적으로 유효함을 보장함

*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했다가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 학습하여 새로운 구조를 생성하는 AI 기법

- 또한, 534만 개 파라미터(Parameter)**의 경량 설계임에도 기존 분자 생성 모델 6종과의 비교에서 36개 화학적 특성 중 약 66.6% 이상에서 우월한 성능을 보였으며, 8,200만 개 분자가 수록된 펙캠(PubChem)*** 대비 95.7%의 신규성과 99.8%의 고유성을 달성함

** AI 모델의 학습 가능한 변수의 수로, 수치가 클수록 모델이 복잡하고 많은 연산 자원이 필요함

***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산하 화학물질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 세계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1억 개 이상의 화합물 정보를 수록함

- 현재 코코그래프는 특정 기능을 목표로 분자를 설계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연구팀은 파라세타몰(Paracetamol)****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후보 분자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탐색하는 등 표적 분자 설계 방향으로 확장을 추진 중임

**** △해열 △진통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일반의약품으로, 의약품 개발 연구에서 기준 분자로 자주 활용됨

[Biotech Spain, 2026.05.04.;The Brighter Side of News, 2026.05.07.]

03 레니오바이오-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 무세포 단백질 발현 협력 체결

- 독일 테크바이오(TechBio)* 기업 레니오바이오(LenioBio)가 미국 DNA 합성 기업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Twist Bioscience)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며, 레니오바이오의 무세포 단백질 발현(Cell-Free Protein Expression)** 플랫폼 앨리스(ALiCE®)와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의 DNA △제조 △자동화 역량을 통합하여 AI 신약 개발의 설계-구축-검증(Design-Build-Test)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목표임



* △AI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공학 등 기술을 생물학 연구에 통합하여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기업 유형

** 살아있는 세포를 사용하지 않고 세포 추출물이나 재조합 단백질을 혼합물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술

- 앨리스 플랫폼은 진핵세포(Eukaryotic Cell)*** 특성을 갖는 △전장(Full-Length) 단백질 △정상 접힘(Folded) 단백질 △기능성(Functional) 단백질을 24시간 내에 생산이 가능하며, 기존 세포 기반 시스템 대비 계산적 설계와 실험실 검증 사이의 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

*** 핵과 세포소기관을 갖춘 복잡한 세포 구조로, △인간 △동물 △식물 △효모 등이 해당하며 복잡한 단백질 접힘과 변형이 가능함

- 레니오바이오 CEO는 AI가 바이오 의약품용 신규 단백질 분자를 설계할 수 있지만 컴퓨터의 설계가 실제 결과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이번 협력으로 실제 분자 데이터를 신속하게 생성하여 랩인더루프(Lab-in-the-Loop)**** 반복 주기를 통해 AI 모델에 실험적 근거를 즉각 피드백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힘

**** AI 모델이 설계한 분자를 실험실에서 즉각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다시 AI 모델 학습에 반영하는 순환 최적화 방식

-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 CEO는 AI 기반 항체 개발에서 반복 속도와 실험적 데이터 품질이 모델 성능과 의사결정에 직결된다고 강조했고, 이번 협력이 AI 기반 신약 개발에서 계산적 설계와 실험실 검증 간의 간극을 좁혀 △단백질 △항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전망임

[First Word Pharma, 2026.05.08.;BioSpace, 2026.05.08.]

04 킹스칼리지런던 연구팀, AI 수술 로봇 임상 혁신 가능성 제시 ... 규제·윤리 체계 정비 선결 과제

- 영국 킹스칼리지런던(King's College London, KCL) 생의공학·영상과학부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사이언스(Frontiers in 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서 '구현된 AI(Embodied AI)*'가 탑재된 차세대 수술 로봇이 수술 실무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윤리 △규제 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물리적 로봇 시스템에 통합되어 실제 환경에서 △감지 △학습 △행동하는 AI로, 수술 로봇에 적용될 경우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보조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음

- AI 기반 수술 로봇 시스템은 △수술팀 성과 인식·의사결정 향상 △수술 중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 △인과관계 인식을 통한 최적 치료 경로 예측 △원격 수술 지원 등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중 센서가 연결된 스마트 수술실 환경에서 AI가 수술 중 각 행동을 최적화하는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됨
- 논문은 AI 수술 로봇 도입의 핵심 미해결 과제로 ①승인 후에도 계속 학습·진화하는 적응형 AI 시스템 규제 방안 ②데이터셋 편향으로 인한 의료 불평등 심화 방지 ③글로벌 연구·산업 집중도 불균형 해소를 지목했으며, 수술의사가 AI 보조를 받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남아야 한다는 인간 감독(Human Oversight)** 원칙을 강조함

** AI 시스템의 출력과 행동을 인간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검토 △개입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체계

- 이번 제안은 AI 수술 로봇이 맞춤형 수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규제 체계 정비 및 다중 이해관계자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환자 안전과 임상 혁신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줌

[The Engineer, 2026.05.08.;King's College London, 2026.05.14.]

05 IAPP 캐나다 심포지엄, 3개 주 개인정보보호청 AI 의료 스크라이브 규제 접근법 공개

- 2026년 5월 IAPP 캐나다 심포지엄(IAPP Canada Symposium 2026)에서 캐나다 ①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BC) ②온타리오(Ontario) ③뉴펀들랜드 래브라도(Newfoundland and Labrador) 3개 주 개인정보보호청(Data Protection Authority, DPA)* 대표들이 AI 의료 스크라이브(AI Medical Scribe)** 규제 접근법을 공개했으며, 앞서 2026년 1월 ①BC ②온타리오 ③앨버타(Alberta) 3개 주가 이미 가이드언스를 발표한 바 있음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준수를 감독하고 지침을 발행하는 주 정부 산하 독립 규제 기관

**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임상과의 환자 간 대화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진료 요약문을 생성하는 AI 소프트웨어

- 온타리오주 시범 프로그램에서 AI 스크라이브가 임상과의 주당 업무 시간을 최대 10시간 단축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온타리오 가이드언스는 AI 스크라이브 관련 △개발사 △도입 기관 △의료진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전자 의뢰 △검사 권고 등 AI 확장 기능에 대한 선제적 규제 방향도 포함됨
-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는 자체 가이드언스를 개발했으며, 개인건강정보법(Personal Health Information Act, PHIA)에 따른 △데이터 관리자와 AI 스크라이브 서비스 간 계약 관계 △환자 동의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룸
- BC주는 공공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에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이원적 체계로 가이드언스 적용 범위가 분절되는 한계가 있으며, 캐나다 연방 AI 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이 의회 정회로 무산된 가운데 각 주가 독자적 접근법을 이어가고 있음
- 이번 심포지엄 논의는 △연방 AI 법률 부재 속 주별 규제 분절 해소와 △의료 AI 거버넌스 표준화가 캐나다 의료 AI 도입의 핵심 선결 과제임을 보여줌

[BLG, 2026.02.13.;IAPP, 2026.05.06.]

06 LLM, 헬스-LLM·엠디에이전츠 프레임워크로 건강 예측·임상 의사결정 재편 실증

-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헬스-LLM(Health-LLM)과 엠디에이전츠(MDAgents)* 프레임워크가 의료기기 업계의 LLM 임상 현장 도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웨어러블(Wearable) 센서 기반 ①실시간 건강 예측과 ②다학제(Multidisciplinary)** 임상 의사결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실증적 해법으로 재주목받고 있음

*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와 LLM을 연결하여, △신호 처리 △맥락 프롬프트 설계를 통해 생리신호 기반 건강 예측 능력을 강화함

** 의료 과제의 복잡도에 따라 LLM 협업 구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다중 에이전트(Multi-Agent) 프레임워크

- 파인튜닝된 헬스알파카(HealthAlpaca)***는 △GPT-4 △제미니-프로(Gemini-Pro)보다 적은 파라미터(Parameter)로 10개 건강 예측 과제 중 7개에서 최고 또는 2위 성능을 달성했으며, 컨텍스트 엔지니어링(Context Engineering)****이 일부 과제에서 최대 23.8%의 성능 향상을 이끄는 핵심 요소임이 확인됨

*** 헬스-LLM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의료 도메인 특화 파인튜닝된 소형 LLM

**** △사용자 프로필 △임상 지식 △시계열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LLM 프롬프트에 통합하는 전략적 설계 기법

- 엠디에이전츠는 단순 과제는 단일 LLM이, 복잡한 다학제 과제는 전문 분야별 LLM 팀이 협업하는 적응형 구조로 설계됐으며 주요 임상 진단 성능 평가에서 단일 에이전트 대비 우수한 성능과 의사 수준의 의료 복잡도 분류 정확도를 입증함
- 두 프레임워크는 LLM을 단일 모델이 아닌 임상 워크플로(Workflow)에 내재화된 에이전트로 접근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의료 AI 상용화의 핵심임을 보여주며, 더 크고 비싼 모델보다 도메인 특화 설계와 적응형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에 투자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임을 시사함

***** 복수의 AI 에이전트가 올바른 순서와 방식으로 협력하도록 조율하는 관리 체계

[arXiv, 2024.01.12.;MD+DI, 2026.05.08.]

07 테더, 구글 메드제마를 상회하는 온디바이스 의료 AI 모델 'QVAC 메드사이' 출시

- 홍콩 암호화폐 기업 테더(Tether)의 AI 연구 그룹이 △스마트폰 △웨어러블(Wearable) 등 저전력 기기에서 직접 구동되는 온디바이스(On-Device)* 의료 특화 AI 모델 △QVAC 메드사이-1.7B(MedPsy-1.7B, 17억 파라미터) △QVAC 메드사이-4B(MedPsy-4B, 40억 파라미터)를 출시했으며, 두 모델 모두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Google)의 의료 AI 모델 메드제마(MedGemma)를 주요 성능 평가에서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됨

*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기기 내부에서 직접 AI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환자 개인정보 보호 △자연 시간 최소화에 유리함

- QVAC 메드사이-1.7B는 임상 실무 평가 지표 헬스벤치 하드(HealthBench Hard)**에서 62.62점을 기록하여 구글 메드제마-1.5-4B보다 11점 이상 높았으며, 메드사이-4B는 70.54점으로 자신보다 약 7배 큰 메드제마-27B를 능가했음

** 실제 임상 환경에서 의료 AI의 진단·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표준 성능 지표

- 두 모델은 ①메드QA(MedQA) ②메드MCQA(MedMCQA) ③MMLU 헬스(MMLU Health) ④펍메드QA(PubMedQA) ⑤아프리메드QA(AfriMedQA) ⑥메드엑스퍼트QA(MedXpertQA) ⑦헬스벤치(HealthBench) ⑧헬스벤치 하드(HealthBench Hard) 8개 의료 성능 평가 지표에서 검증됐으며, △의료 감독 학습 △임상 추론 데이터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RL)***을 결합한 단계적 학습 방식으로 훈련됨

*** AI가 시행착오를 통해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

- 이번 출시는 환자 데이터의 외부 전송 없이 병원 시스템과 모바일 기기에서 의료 추론이 가능해지는 온디바이스 의료 AI 시대의 본격화를 알리는 것으로 주목됨



[KuCoin, 2026.05.07.;CryptoBriefing, 2026.05.07.]

08 읍, 임상의 화상 상담·전자건강기록 연동을 통해 디지털헬스 플랫폼 전환 본격화

- 미국 피트니스 웨어러블(Wearable) 기업 읍(WHOOP)이 올해 여름 미국 내 회원을 대상으로 앱 내 임상의 온디맨드(On-Demand)* 화상 상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헬스엑스(HealthEx)**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연동으로 회원의 △진단 내역 △복용 약물 △의료 시술 이력을 읍 앱 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됨

* 사전 예약 없이 필요할 때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

** 의료 기록 플랫폼으로, 다양한 의료기관의 전자건강기록을 통합·관리하는 헬스케어 데이터 연동 서비스

- 읍의는 상담 시작 전 회원의 수개월치 △심박수 변동성(Heart Rate Variability, HRV)*** △수면 단계 △회복 점수 △스트레인(Strain)**** 데이터 △혈액검사 결과 △EHR에 접근할 수 있어 단편적 정보에 의존하는 기존 원격진료(Telemedicine)와 차별화된 데이터 기반 상담이 가능함

*** 심장 박동 간격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율신경계 기능과 회복 상태를 평가하는 데 활용됨

**** 신체적 활동의 강도와 누적 부하를 수치화한 읍 고유의 운동 부하 지표

- 읍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2가지 AI 기능도 강화했으며, ①마이 메모리(My Memory)는 회원이 AI 코칭 레이어에 개인 맥락 정보를 직접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고 ②프로액티브 체크인(Proactive Check-Ins)은 마라톤 등 주요 이벤트에 앞서 AI가 선제적으로 수면·훈련 조절을 권고하는 기능임

- 이번 업데이트는 피트니스 웨어러블이 수동적 데이터 수집 도구를 넘어 △AI △임상 서비스 △EHR를 통합하는 디지털헬스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델의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TechBuzz, 2026.05.08.;Mobi Health News, 2026.05.12.]

09 파트너 테라퓨틱스, NRG1 융합 양성 담관암 표적 치료제 '비젠그리' FDA 승인 획득

- 미국 바이오텍(Biotech) 파트너 테라퓨틱스(Partner Therapeutics)가 NRG1 유전자 융합(NRG1 Gene Fusion)* 양성 담관암(Cholangiocarcinoma)** 치료제 '비젠그리(BIZENGRI®)'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했으며, 이는 NRG1 융합 양성 담관암에 대한 세계 최초의 표적 치료제임



*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NRG1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와 비정상적으로 결합하여 암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돌연변이

** 간에서 십이지장으로 담즙을 운반하는 담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대부분 진단 시 수술이 불가능한 희귀 소화기암

- 이번 승인은 FDA의 국가우선바우처(Commissioner's National Priority Voucher, CNPV)*** 대상이 되어 목표보다 5개월 이상 앞서 이루어졌고, 비젠그리는 △혁신 치료제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희귀 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을 사전에 획득함

*** FDA가 국가 주요 의료 과제 해결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의 심사를 가속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우선순위 심사 지원 제도

**** 미국 내 환자 수 20만 명 미만인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FDA가 부여하는 특별 지정

- 승인은 NRG1 융합 양성 담관암 환자 19명 대상 임상 2상 이엔알지(eNRGy) 시험을 기반으로 하며, △전체 반응률(Overall Response Rate, ORR)은 36.8%였고 △반응 지속 기간(Duration of Response, DOR)은 2.8~12.9개월 △약물 관련 부작용에 의한 투여 중단율은 1% 미만으로 양호한 안전성을 입증함
- 이번 승인은 NRG1 유전자 융합이라는 희귀 분자 표지자를 표적으로 하는 첫 번째 치료제가 탄생한 것으로, 종양 유형에 관계없이 특정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바이오마커(Biomarker) 기반 정밀 종양학(Precision Oncology) 치료 전략이 희귀 암종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줌

[Al-Ain News, 2026.05.07.;FDA, 2026.05.08.]

10 리제네론·인텔리아·로켓 파마 등, 유전자 치료 분야 FDA 승인 및 임상 성과 잇따라

- 미국 바이오제약 기업 리제네론(Regeneron)이 OTOF 유전자(OTOF Gene)* 변이로 인한 유전성 청각 손실 치료제 '오타르메니(Otarmeni™)'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가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을 획득했으며, 이는 신경감각(Neurosensory) 기능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설계된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리제네론은 미국 내 무료 제공 계획을 밝힘

* 내이 유모세포에서 소리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단백질을 암호화하며, 양쪽 대립 유전자 모두 변이 시 선천성 청각 손실이 발생함

- 임상 1·2상 CHORD 시험에서 10개월~16세 소아 20명에게 와우관(Cochlea)** 내 단회 투여한 결과 24주 시점에 80%(20명 중 16명)가 청력 개선을 달성했으며, 48주까지 추적된 참가자의 42%는 속삭임까지 들을 수 있는 정상 청력 수준을 회복하였음

** 소리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달팽이 모양의 내이 구조

- 미국 바이오텍 인텔리아 테라퓨틱스(Intellia Therapeutics)는 유전성 혈관부종(Hereditary Angioedema, HAE)*** 대상 체내 유전자 편집 치료제 '론보-Z(Lonvo-z)'의 임상 3상 HAELO 시험에서 발작 빈도 87% 감소를 달성함

*** △피부 △점막 △소화기에 갑작스럽고 심각한 부종이 반복 발생하는 희귀 유전 질환

- 미국 유전자 치료 기업 로켓 파마(Rocket Pharma)는 FDA 가속 승인으로 획득한 희귀 소아 면역 결핍증 치료제 '크레슬라디 (Kresladi™)'의 우선심사 바우처(Priority Review Voucher, PRV)를 매각했으며, 유전자 치료 파이프라인 인수로 업계 재편이 이어짐

- 이번 승인은 유전자 치료가 감각 신경 기능 장애 치료에 적용된 세계 최초 사례로, 선천성 유전 질환에 대한 일회성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청각·시각 등 신경감각 분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줌

[Reaeneron, 2026.04.23.;GEN, 2026.05.08.]

11 뉴욕시립대학 연구팀, 대기오염·폭염의 실시간 건강 영향 추적 가능성 확인



- 미국 뉴욕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연구팀이 △웨어러블(Wearable) 기기 △스마트폰 GPS △생태순간평가(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를 통합하여 대기오염과 폭염이 개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파일럿 연구(Pilot Study)를 수행함

* 하루 여러 차례 스마트폰 등을 통해 현재 △기분 △증상 △행동을 즉각 기록하는 설문 방식

- 참가자들은 약 1개월간 핏빗(Fitbit) 스마트워치를 착용 후 하루 수차례 기분 설문에 응답했고, 연구팀은 ①GPS 위치 데이터와 ②대기오염(△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이산화황 등) 데이터를 결합하여 개인별 환경 노출 프로파일(Exposure Profile)**을 구축함

** 개인이 하루 동안 이동하면서 실제 노출된 환경 조건을 시간·장소별로 기록한 데이터 집합

- 주요 발견으로는 △이산화질소·폭염 노출이 높은 날 심박수 변동성(Heart Rate Variability, HRV)***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산화황 노출 증가 시 불안감·절망감이 높아졌고 △폭염 노출이 높을수록 오히려 슬픔이 감소하는 반직관적 결과도 확인됐음

*** 심장 박동 간격의 변화량으로, 자율신경계 기능과 스트레스 회복력을 평가하는 생체 지표

- 연구팀은 ①웨어러블 ②GPS ③실시간 설문을 결합하여 △환경 노출 △즉각적 건강 반응을 동시에 측정할 세계 최초 시도임을 강조했으며,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지원 하에 청소년 뇌 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환경 노출 영향을 추적하는 대규모 후속 연구를 진행 중임

- 이번 연구는 소형 파일럿임에도 웨어러블 기기와 환경 역학(Environmental Epidemiology)**** 통합이 개인 맞춤형 예방 의학과 임상 의사결정 지원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을 보여줌

**** 환경 요인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 수준에서 연구하는 역학 분야

[The Graduate Center CUNY, 2026.05.08.:News-Medical, 2026.05.08.]

12 FDA-CMS, 혁신 의료기기 메디케어 적용 가속화 'RAPID' 프로그램 발표

- △미국 식품의약국(FDA)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가 혁신 의료기기(Breakthrough Device)*의 FDA 허가 후 메디케어(Medicare)** 급여 적용까지의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최단 60~90일로 단축하는 'RAPID(Regulatory Alignment for Predictable and Immediate Device)' 프로그램을 공동 발표했으며, 기존 TCET(Transitional Coverage for Emerging Technologies)*** 프로그램은 신규 접수가 중단됨

* FDA가 지정한 혁신 의료기기로 생명 위협과 영구적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 기존 치료법보다 효과적인 의료기기

** 주로 65세 이상 미국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공공 의료보험

*** 기존에 운영되던 혁신 의료기기 메디케어 급여 적용 임시 경로로, 연간 최대 5개 기기만 처리 가능한 한계로 비판을 받아 왔음

- RAPID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사용 허가(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 IDE)****부터 FDA와 CMS가 공동으로 임상시험 설계에 참여하여 △허가 △국가 급여 결정(National Coverage Determination, NCD)에 필요한 근거를 동시에 생성하는 방식임

**** FDA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인체 적용을 허가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임상시험 개시 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승인

- RAPID는 연간 5개 한계였던 기존 TCET를 대체하여 약 40~60개 기기에 적용 가능하며, 한편 CMS는 혁신 의료기기의 신기술 가산지급(New Technology Add-On Payment, NTAP) 특례 경로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음

- 이번 발표를 통해 급여 적용은 빨라지되 병원 지급액은 줄어든 수 있어, △혁신 의료기기 제조사 △의료기관 △투자자 모두 두 제도 변화의 복합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Latham & Watkins LLP, 2026.05.07.:Roopes & Grav, 2026.05.08.]

13 후지필름, 반월판 손상 대상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세이비스커스' 일본 승인 획득

- 일본 종합 헬스케어·영상 기업 후지필름(FUJIFILM) 자회사 후지필름 도야마 케미컬(FUJIFILM Toyama Chemical)이 반월판(Meniscus)* 손상 치료제 '세이비스커스'(SAVYSCUS®)* 주사에 대한 일본 의약품의료기기법(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Act, PMD Act) 제조·판매 승인을 획득했으며, 이는 반월판 손상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초의 재생의료 제품(Regenerative Medical Product)** 승인 사례임



* 무릎 관절에서 △충격 흡수 △하중 분산 △관절 안정성을 담당하는 반달 모양의 연골 구조물

** △세포 △조직 △유전자를 활용하여 손상된 신체 기능을 회복·재생하는 첨단의료 제품

- 세이비스커스는 도쿄과학대학교(Institute of Science Tokyo)에서 개발한 활막 중간엽 줄기세포(Synovial Mesenchymal Stem Cell, SMSC)*** 기반 기술을 적용한 자가(Autologous)**** 치료제로, 환자 본인의 무릎 활막 조직에서 세포를 채취·배양하여 관절경(Arthroscopy)***** 수술을 통해 최소 침습적으로 투여함

*** 관절 활막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로, △연골 △뼈 △지방 등으로 분화 가능하며 무릎 반월판 재생에 특화된 세포 유형

**** 환자 본인의 세포를 채취하여 치료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면역 거부 반응 위험이 없음

***** 관절 내부를 카메라로 직접 보며 수술하는 최소 침습 내시경 수술 기법

- 임상 3상 시험에서 반월판 절제술이 필요한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무릎 기능·통증·안정성·부종 등을 종합 평가하는 라이쇼름 무릎 점수(Lysholm Knee Score)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혈관 비분포 영역 중심부에서 35.7%의 환자가 완전 치유를 달성하였으며 △104주까지 제품 관련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음
- 일본에서는 연간 약 5만 건의 반월판 수술 중 절반이 반월판 절제술에 해당하며, 절제 후 장기적으로 일본 내 2,000만 명 이상이 이환된 무릎 골관절염(Knee Osteoarthritis) 진행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 이번 승인은 반월판 보존이라는 정형외과 치료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한 사례로, 활막 줄기세포 기반 자가 재생 치료가 기존 수술적 절제 중심의 반월판 치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옵션으로 부상할 것으로 주목됨

[Business Insider, 2026.05.08.; MedPath, 2026.05.08.]

14 FDA, MoCRA 시행 3년 성과 공개 ... 화장품 규제 감독 강화 기조 지속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6년 5월 4일 2022년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MoCRA)* 시행 3년간의 성과를 공개했으며, MoCRA는 1938년 이후 80여 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화장품 규제의 가장 큰 개혁으로 FDA의 화장품 감독 권한을 대폭 확대했음

* 화장품 제조사의 △시설 등록 △제품 목록 제출 △이상사례 보고 △안전성 검증 의무를 강화한 법률로, 2022년 12월 29일 발효됨

- MoCRA 시행으로 △화장품 시설 등록 건수는 기존 5,176건에서 1만 5,000건 이상으로 약 3배 △제품 등록 건수는 3만 5,102건에서 100만 건 이상으로 약 30배 증가했으며 △업계의 FDA 이상사례 보고도 3배 이상 늘어, FDA는 이를 AI 기반 이상 사례 모니터링 시스템(Adverse Event Monitoring System)**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음

**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전 규제 카테고리의 이상사례를 통합 모니터링하는 FDA의 단일 대시보드 시스템

- FDA는 2025년 12월 화장품에 사용되는 상위 25개 과불화화합물(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의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MoCRA로 의무화된 제품 목록 제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됐고 PFAS 함유 제품이 전체 등록 제품의 0.4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자연 분해되지 않고 일부 화장품에 방수·내구성 향상 목적으로 사용되며, △발암성 △내분비 교란 우려로 규제 논의가 확대됨

- MoCRA 이행을 통해 FDA의 화장품 감독이 자발적 보고 중심에서 △의무적 △체계적 규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화장품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은 커지면서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새로운 화장품 규제 환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FDA, 2026.05.04.; Kellogg Dr. 2026.05.13.]

15 로레알-엔비디아, AI 기반 분자 시뮬레이션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혁신 협력 확대

- 프랑스 글로벌 뷰티 기업 로레알(L'Oréal Group)이 미국 반도체·AI 기업 엔비디아(NVIDIA)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엔비디아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 프레임워크 '알케미(Alchemi)*'를 연구개발 인프라에 통합했으며, 기존 마케팅·광고 최적화 중심의 AI 활용에서 핵심 연구 영역으로의 전환을 선언함



* 분자 수준의 물성·상호작용을 AI로 예측하는 엔비디아의 계산화학(Computational Chemistry)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 알케미는 원자 수준에서 성분의 성능과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Simulation)하여 수천 가지 변수를 가상 환경에서 동시에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기준 대비 최대 100배 빠른 제형(Formulation)** 발굴을 가능하게 하고 △물리적 실험실 테스트 이전 단계에서 최적 성분 조합을 식별함

** △화장품 △의약품 등에서 여러 성분을 특정 비율로 혼합하여 원하는 효과와 질감을 구현하는 기술적 조합

- 현재 협력은 ①자외선 차단(Photoprotection) ②피부 톤 관리(Skin Tone Management) 두 가지 핵심 피부 과학 영역에 집중됐으며, 로레알은 이를 통해 스킨케어 제품의 성능 기준 향상과 소비자 맞춤형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임
- 로레알 부최고경영자(Deputy CEO)는 AI 기반 분자 시뮬레이션이 원자 수준의 발견을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차원을 연구 현장에 더해주며, 더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제품 개발을 가속화한다고 밝힘
- 이번 협력은 AI 기반 분자 시뮬레이션이 뷰티 산업의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전통적인 실험실 시행착오 방식에서 디지털 예측 기반 정밀 제형 개발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줌

[BOL News, 2026.05.05.;The Jerusalem Post, 2026.05.08.]

16 인코스메틱스 글로벌 2026, 바이오텍·실리콘 대체·스킨케어 선케어 혁신 성분 주목

- 2026년 4월 파리에서 개최된 인코스메틱스 글로벌 2026(in-cosmetics Global 2026)에서 233개 신규 성분이 공개됐으며, 영국 성분 기업 크로다 뷰티 액티브(Croda Beauty Active)는 4월 21일 사전 발표한 차세대 펩타이드(Peptide)* 전달 기술 매트릭실 네오라이드(Matrixyl® Neolide™)를 선보였고 기존 대비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43% 절감하고 15일 내 가시적 피부 개선 효과를 입증함

* 아미노산이 결합된 단백질 조각으로, 피부 세포에 작용하여 기능성 효능을 발휘하는 화장품 핵심 성분

** 제품 △생산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을 수치화한 지표

- △미국 성분 기업 이놀렉스(Inolex)의 실리콘 대체 헤어케어 성분 렉스필 샤인(LexFeel® Shine)***과 △스위스 지보당 액티브 뷰티(Givaudan Active Beauty)의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기반 복합 전달 시스템 벡터히알(VectorHyal™)****도 주목받았으며, 벡터히알은 기능성 성분과 활성 성분의 경계를 허무는 다기능 전달 기술로 평가됨

*** 기존 실리콘과 동등한 △부드러움 △윤기 △가벼움을 구현하는 친환경 실리콘 대체 성분

**** 히알루론산 기반 캡슐화로 다양한 활성 성분을 동시에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시스템

- △바이오텍(Biotech) △정밀 발효(Precision Fermentation)***** 기술을 통한 친환경 대체 생산이 주요 트렌드로 부상했으며, 이를 통해 원료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업계 혁신이 집중됨

***** 미생물을 활용하여 기존 원료를 동물·농업 의존 없이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원료 생산 방식

- 선케어 분야에서는 자외선 차단을 넘어 △노화 방지 △피부 광채 효과를 결합한 스킨화된 선케어(Skinified Suncare)로의 진화가 두드러졌으며, SPF 부스터(SPF Booster)가 단일 성분으로 넓은 자외선 차단과 피부 기능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됨
- 이번 전시회는 △지속가능성 △고성능 △감각적 경험을 동시에 충족하는 원료 혁신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기준으로 자리잡았음을 시사함

[Croda, 2026.04.21.;Global Cosmetics News, 2026.05.07.]

17 GCC 의료관광 시장, 2034년 225억 달러 돌파 전망

-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IMARC 그룹(IMARC Group)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의료관광 시장 규모는 2025년 96억 달러(한화 14조 2,789억 원)에 달함

*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아라비아반도 6개국이 정치 및 경제적 협력과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1981년에 결성한 지역 협력 기구



- GCC 의료관광 시장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9.94%로 성장하여 2034년에는 225억 달러(한화 33조 4,6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 △숙련된 의료 전문인력 △최첨단 의료시설이 아시아·아프리카·유럽 환자를 유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쟁력 있는 가격과 정부의 의료 분야 확장 지원도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 시장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는 △선진국 의료비 상승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 △GCC 병원의 의료관광 마케팅 확대 △미용 및 웰니스 관광 서비스 확장 △의료 인증 기준 향상 등이 언급됨
- 또한, △AI 기반 의료관광 플랫폼 도입 △다국어 환자 지원 시스템 △디지털헬스 기술 통합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이 시장 확대를 추가적으로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됨

[Market Research Future, 2026.04.06.;openPR.com, 2026.05.08.]

18 JCH 디지털, 의료관광 수요 회복에도 외과의사 환자 의뢰 부진 지속되는 원인 분석

- 글로벌 관광이 COVID-19 이전 수준의 97%까지 회복되며 의료관광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광고 △신규 고객 발굴 △온라인 노출 확대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외과의사 다수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환자 의뢰(Referral)*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담당 의사나 의료기관이 특정 환자의 △치료 △검사 △자문이 더 전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의료 전문가나 상급 병원으로 환자의 진료를 넘기는 의료 절차

- 캐나다 디지털 마케팅 기업인 JCH 디지털(JCH Digital)의 보고서 '의학에서의 권위 대 인지도(Authority vs Recognition in Medicine)'는 대부분의 외과의사들이 환자 유치 경쟁에 늦게 나서는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함 ▶ <관련 내용 보기>
- 또한, 환자의 특정 의사에 대한 인식은 정보 탐색 이전 단계에서 이미 일상적 노출을 통해 형성되며 환자가 정보 탐색을 시작할 때는 이미 선택지가 좁혀진 상태임
- 보고서는 클리닉들이 높은 노출도를 달성하더라도 환자의 탐색 시점에 발견될 뿐 그 이전부터 인지되지 못해 실제 환자 유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신뢰 격차(Trust Gap)'로 명명함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JCH 디지털은 소셜미디어 도달률이나 유료 광고 등 인지도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환자가 정보 탐색을 시작하기 전에 독립적인 제3자 매체를 통해 의사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 구축을 강조함
- 환자의 신뢰는 의사를 비교하는 시점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축적되어 이미 형성이 완료된 상태로 비교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므로, 환자가 검색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인지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FinancialContent, 2026.04.11.;msn, 2026.05.07.]

19 인도,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 인도의 의료관광 산업은 2026년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합리적 가격을 동시에 보유한 목적지로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BOI)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의료 목적의 외국인 방문객은 50만 7천 명을 상회하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5.5%를 차지함
- 인도는 미국 및 유럽권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심장 △정형외과 △종양 △난임 치료 등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함
- 인도 정부는 관광부(Ministry of Tourism)와 आयुष (Ministry of Ayush)*의 협력 하에 ‘힐 인 인디아(Heal in India)**’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전자 의료비자 및 동반자 비자(Attendant Visa) 등 간소화된 비자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 인도의 전통 의학 및 보완 대체의학에 대한 △교육 △연구 △진흥을 담당하는 인도 정부의 중앙 부처
- ** 현대 임상 의학과 전통 웰니스를 결합해 인도를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종합 지원 정책
- 주요 거점 도시로는 다수의 종합전문병원과 외국인 환자 서비스를 보유한 첸나이(Chennai)가 인도의 의료 수도로 언급되며, 케랄라(Kerala)와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등도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인도 병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국가인증위원회(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Hospitals & Healthcare Providers, NABH) 인증을 바탕으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음
- 시장 규모는 2026년 204억 달러(한화 30조 3,427억 원)로 추산되며, 연평균 12%의 성장률로 2036년에는 650억 달러(한화 96조 6,803억 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주별 세분화된 의료관광 통계 부재 △시설 간 위생·품질 편차 △일관성 없는 가격 구조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며, 규제 강화와 홍보 확대, 민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의 입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Medical Buyer, 2026.05.08.; eHealth Magazine, 2026.05.12.]

20 호찌민시-지멘스 헬시니어스, 공립병원 첨단 진단 장비 도입을 위한 협력 추진

- 2026년 5월 8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Ho Chi Minh City People's Committee) 부시장이 독일 의료기기 기업 지멘스 헬시니어스(Siemens Healthineers) 대표단을 접견하고 시내 공립병원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회의에서 △암 △심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형 MRI 시스템 ‘마그네툼 플로우(MAGNETOM Flow)’와 첨단 CT 시스템 ‘소마툼 프로.펄스(SOMATOM Pro.Pulse)’ 등 최신 진단 영상 기술을 소개함
- 또한, △기술 이전 및 교육 △연구·개발 지원 △병원 내 ‘장비 배치·대여’ 모델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내 공립병원에 신규 진단 영상 기술을 보급하는 협력을 제안함
- 부시장은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협력 제안을 높이 평가하며, 호찌민시가 아세안(ASEAN) 지역의 의료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첨단 장비 투자 △전문 기술 이전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의료 솔루션 적용에서 글로벌 주요 의료기술 기업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호찌민시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은 지멘스 헬시니어스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주제별 워크숍 △전문 교류 포럼 △병원과 기업 간 협력 연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21 인도 상공회의소, 제3회 헬스·뷰티·웰니스 심포지엄 개최 ... 의료관광 및 예방 의료 논의

- 2026년 5월 7일 인도 상공회의소(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 ASSOCHAM)가 찬디가르(Chandigarh)에서 제3회 「헬스·뷰티·웰니스 심포지엄 2026(Health, Beauty and Wellness Symposium 2026)」을 개최하고, △정책 입안자 △의료 전문가 △산업계 리더들이 참석해 의료관광 및 예방 의료, 웰니스 분야의 미래를 논의함
- 주빈으로 참석한 펀자브(Punjab) 주지사 겸 찬디가르 연방직할령(Union Territory, UT)* 행정관은 ‘결핵 없는 인도(TB-Free India)**’ 실현과 ‘마약 없는 펀자브(Nasha Mukht Punjab***)’ 달성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을 촉구함
- * 연방제 국가에서 중앙정부(연방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행정 구역으로, 일반적인 ‘주(State)’와 달리 독자적인 자치 정부가 없거나 제한적인 자치권만을 가지는 것이 특징임
- ** 인도가 전 세계 결핵의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 정부가 2018년에 공식 출범시킨 국가 결핵 퇴치 캠페인
- *** 인도 펀자브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마약 중독을 근절하기 위한 주정부와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마약 퇴치 및 예방 캠페인
- 또한, 찬디가르 개발위원회 공동의장은 인도 웰니스 산업 전반의 강화를 위한 산업계와 정부 간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함
- 하리아나(Haryana) 주 위원장은 예방 의료 분야의 고용 및 투자 잠재력을, 잠무·카슈미르(Jammu & Kashmir) 연방직할령 위원장은 북인도 지역의 의료관광 및 웰니스 인프라를 소개함
- 심포지엄은 ①글로벌 헬스·의료관광 ②제약·웰니스 산업 혁신 ③리더십·창업·건강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를 주제로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됨



[msn. 2026.05.08.;Rozana Spokesman, 2026.05.08.]

22 태국, 외국인 관광객 의료비 미납 급증에 여행자 보험 의무화 검토

- 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가 비보험 외국인 환자의 의료비 미납 문제가 심각해지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중 사고 및 질병 대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보건부 추산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미납 의료비는 연간 1억 바트(한화 46억 200만 원)를 초과하며, 푸켓(Phuket)의 한 병원은 미보험 외국인 환자 치료비로만 연간 1,000만 바트(한화 4억 6,020만 원)를 부담하고 있음
- 병원 측은 미숙한 오토바이 운전과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고가 외국인 환자의 주요 발생 원인이라고 언급했으며, 태국 내 병원은 환자의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응급 치료를 제공해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를 지님
- 보건부 장관은 관광객 의무보험 도입을 공식 검토 중임을 확인했으며, 입국 전 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또는 입국 절차와 연계한 보험료 부과 방식 등 세부 시행 방안을 관광·보험 업계와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보험료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 관광객 감소를 방지하는 동시에, 병원의 응급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방문객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태국은 일부 장기 체류 비자에 한해 건강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기 관광 비자에는 보험 의무 규정이 없는 상태임



[Nation Thailand. 2026.05.01.;Travel Weekly Asia. 2026.05.08.]

23 WCMT 아프리카 지부장, 이집트 의료 및 웰니스 관광 국가 전략 산업화 방안 제시

- 세계의료관광위원회(World Council for Medical Tourism, WCMT) 아프리카 지부장은 ①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 ②천연 치유 자원 활용 ③국가 주도의 환자 여정 관리(Patient Journey Management)를 핵심 축으로 이집트 의료 및 웰니스 관광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지부장은 이집트가 의료관광 분야에서 경쟁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간 명확한 실행 체계가 부재했다고 지적하며 현 단계가 개별적·분산적 노력에서 벗어나 제도적으로 통합된 체계로 나아가는 실질적 전환점임을 강조함
 - 이집트는 △여행 예약 및 숙소부터 △치료·웰니스 프로그램 선택 △숙박 △귀국까지 의료관광객의 전 여정을 관리하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며, 국가 의료관광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Health Tourism)가 플랫폼 운영과 의료관광 분야를 관리할 예정임
 - 지부장은 전문 의료 중심의 의료관광과 천연 자원 기반의 웰니스 관광을 구분하며, 이집트가 보유한 1,300여 개의 △광천수 △테라퓨틱 샌드(Therapeutic Sand)* △기후 기반 치유지** 등을 시장성 있는 관광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적 조사 △인프라 개발 △인증 △국제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 태양열로 뜨거워진 사막 모래 속에 몸을 파묻어 질병을 치료하고 피로를 푸는 이집트 고대 전통 자연 요법
 ** 건조하고 맑은 공기, 풍부한 일조량 등 이집트 특유의 기후 조건을 활용한 호흡기 및 피부 질환 요양 적합 지역
- 또한, 의료관광이 외화 수익 창출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웰니스 △예방 의료 △재활 수요가 늘어나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이집트가 의료관광 분야의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Egypt Today, 2026.05.05.;Eleqtisade News, 2026.05.07.]

24 인도-베트남, 의약품 공급·디지털 헬스·전통 의학 분야 협력 강화 합의

- 인도 총리와 베트남 국가주석은 5월 6일 뉴델리(New Delhi)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헬스케어 분야 협력 확대를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
 - 양국은 인도 제약 산업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상호 협의를 전제로 2027년부터 인도 제약 기업이 베트남 공공 의료시설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또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기술의 역할이 커지는 흐름을 반영해 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한 디지털헬스 전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양국의 풍부한 전통 의학을 바탕으로 △연구 △지식 공유 △기관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전통 의학 분야 양해각서 체결과 베트남 내 आयुर्वेद(Ayurveda)* 석좌 교수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함
- * 인도의 전통 의학 체계로, △약초 △식이요법 △마사지 △요가 등을 활용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추구하는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인적 치유 의학
-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CDSCO)**와 베트남 의약품 당국(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DAV) 간 △의약품 △바이오 제품 △의료기기 △화장품 규제 분야 헬스케어 협력 협정도 체결됨
 -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공동 연구 △R&D 센터 구축 △제품 개발 등을 포함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인도-베트남 간 △교역 △관광 △비즈니스 전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The Hawk, 2026.05.06.;Sarkaritel.com, 2026.05.07.]

무역통상

의료 인공지능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의료서비스

글로벌 행사



프리미어 올랜도 2026

Premiere Orlando 2026

개최도시 미국 올랜도

행사일정 2026.05.30.~2026.06.01.

행사주제 더욱 크고, 더욱 대담하고, 더욱 혁신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다

주요내용 △헤어 △네일 △스킨케어 △스파 △웰니스 △메이크업 등 전 뷰티 분야의 전문가와 △학생 △브랜드 △에듀케이터 △인플루언서가 한자리에 모이는 미국 최대 뷰티 트레이드쇼



CPHI 북미 2026

CPHI North America 2026

개최도시 미국 필라델피아

행사일정 2026.06.02.~2026.06.04.

행사주제 제약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

주요내용 CDMO·위탁생산 생태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제약 업계의 전문가·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북미 최대 규모의 제약 산업 전시·네트워킹 행사



DIA 글로벌 연례 회의 2026

DIA 2026 Global Annual Meeting

개최도시 미국 필라델피아

행사일정 2026.06.14.~2026.06.18.

행사주제 글로벌 생명과학 혁신 미래 설계

주요내용 △산업계 △규제기관 △학회 △환자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의약품 개발의 현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생명과학 컨퍼런스



HLTH 유럽 2026

HLTH Europe 2026

개최도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행사일정 2026.06.15.~2026.06.18.

행사주제 경계 밖으로(Step Outside)

주요내용 △의료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의료 제공자 리더십 △생명과학·제약 혁신 △공중 보건 △여성 건강 △헬스테크 스타트업 투자 등을 주제로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혁신가·정책 입안자가 참여하는 유럽 최대 규모 컨퍼런스



월드 헬스 엑스포 마이애미 2026

World Health Expo Miami 2026

개최도시 미국 마이애미

행사일정 2026.06.17.~2026.06.19.

행사주제 헬스케어의 새로운 역사, 지금 마이애미에서 시작된다

주요내용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재활·보조기기 △병원 인프라 △체외진단 등 전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기업·바이어가 한자리에 모이는 미주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헬스케어 산업 전시·네트워킹 행사(구 FIME)